

장수 문화재 활용사업 날갯짓

관련 공모사업 3건 모두 선정
국가예산 1억6000만원 확보
지역 문화유산 관광 활성화

장수군이 2019년도 문화재 활용·교육사업에 공모한 3건의 사업이 모두 선정됐다. 4일 장수군에 따르면 선정된 문화재 활용·교육사업은 '생생문화재 사업-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에서 미래 찾기',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꿈이 커 가야프로젝트',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긴 물, 긴 역사 장수향교' 3건으로 예산 1억6000만원을 확보했다. 특히 생생문화재 사업과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은 향교서원 문화재 활

용사업에서 처음으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생생문화재사업은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활용해 문화유산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관광지로서 재탄생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은 지역공동체 문화정체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권리와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특색있는 문화유산교육을 발굴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장수군 대표문화유산인 가야문화유산을 테마로 하는 사업이다.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은 향교서원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을 넘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청소년들의 인성을 기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현존하는 향교 중 최

고로 평가되며 보물로 지정된 장수향교를 기반으로 한 교육사업을 신청해 선정됐다. 이번 문화재 활용교육 사업의 선정은 장수지역에 자리한 문화재의 중요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으며 지역민의 문화재 인식개선 및 교육에 많은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수 군수는 "2019년 문화재 활용·교육사업 선정은 장수군 내 가야문화유산과 장수향교의 가치와 역사성,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장수군민들에게 지역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체험과 문화향유기회가 제공돼 기쁘며 앞으로 많은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전남 여주시 일원에서 중증장애인 및 가족 등 30여명 대상 '2018 하반기 중증장애인 가족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중증장애인 가을나들이 '행복한 동행'

장수군 장애인복지관 30여명
여수아쿠아리움 관람 등 관광

장수군 장애인복지관(관장 김진)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전남 여주시 일원에서 중증장애인 및 가족 등 30여명 대상 '2018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가족문화체험'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나들이는 여수아쿠아리움 관람과 해상 케이블카 탑승 등 여수시 관광을 통해 평소 바깥나들이가 자유롭지 못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정

서적 지지를 도모하고 보호자들에게는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해 삶의 활력을 불어 넣었다. 보호자 김 씨는 "이번 여행은 힐링과 더불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진 관장은 "상반기 가족문화체험 만족도가 높아 하반기에도 계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은 시·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자체방역의 개념이 강화되면서 개정안 홍보와 지도 점검을 계획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진안,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
농가 현장 지도·점검 박차

진안군이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홍보하고 현장 방역시설의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시·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자체방역의 개념이 강화되면서 축산농가의 방역시설과 체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개정안 홍보와 지도 점검을 계획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10만수 이상 가금농가의 방역관리 책임자 선임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방역시설

기준 강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대상 확대 ▲일시 이동중지 명령 권자의 범위 확대 등이다. 특히 방역이 취약한 오리 및 산란계 농가에 대해서는 군 가축방역관이 주기적으로 방문해 방역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농가 교육을 병행해 농가의 자체방역에 대해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가금농가별 지정 전담공무원의 사전 재교육을 통해 AI 발생 위험 시기에는 일반농가와 함께 자체방역 체계를 관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방역을 강화해 고병원성 AI 청정지역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국 최고의 '고려홍삼' 찾아라!

진안군 홍삼왕 선발대회
오는 8일까지 신청 접수

진안군이 2018 진안홍삼축제를 기념해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인 고려홍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대한민국 고려홍삼왕 선발대회'를 연다. 고려홍삼왕 선발대회는 최고의 홍삼을 선발하는 '고려홍삼왕'과 '치미(가공한 홍삼으로 뿌리를 잘라내는 작업)를 하지 않은 홍삼으로

가장 사람의 형상을 닮은 '진짜사홍삼', 가장 '특이한 홍삼' 등 총 3개 부문에서 각 부문별 진, 선, 미 3점씩 총 9점을 선발한다. 출품된 홍삼 중 고려홍삼왕 부문은 농촌진흥청, 인삼자조금관리위원회, 진안홍삼연구소,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로 선정된다. 진짜사홍삼과 특이한 홍삼 부문은 축제기간 관광객들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접수는 10월 8일까지이며, 시상금

은 2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총 650만원을 지급한다. 대한민국 고려홍삼왕에 대한 시상은 축제기간 마지막 날인 21일 오후 4시 30분에 마이신북부 일원 진안홍삼축제장 주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선정되지 않은 홍삼은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전국에서 홍삼을 가공하는 인삼조합이나 홍삼가공 업체들은 홍삼을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농기계 새 오일 교환해드려요"

폐오일 무상교환사업 추진 청정환경 지키기 보탬



진안군이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폐오일을 새 오일로 무상 교환해 주고 있어 청정환경 지키기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농기계 폐오일 무상 교환사업은 농업기계를 자가 정비할 때 발생하는 폐오일의 방치나 무단 투기를 방지하고 토양과 수질 오염을 막아 농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2014년부터 각 읍면 농기계 보관장과 권역별 임대

사업소 등에 폐유 수거통을 설치하고 농기계 지역 순회수리 교육과 병행해 폐유 수거와 오일 교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농기계를 많이 쓰는 시기인 봄과 가을에 오일 교환이 급증하면서 현재까지 새 오일 약 1만2000리를 교환해 줌으로써 농가 비용도 덜고 농촌 환경도 살리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다. 군은 초기 4000여만원에서 올해에는

1억 4000만원까지 예산을 증액하고, 대상 기종 역시 대형 농기계에서 이앙기 등 소형 농기계로 확대 교환해 주고 있다. 계획한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홍보와 운영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은 농협에 등록된 면세유 지원 농기계 대상이며, 농업인이 농기계 정비 후 폐오일을 가져오면 이앙기와 관리는 1리터, 경운기 4리터와 콤팩트 8리터, 트랙터는 최대 12리터까지 새로운 엔진오일로 교환해 준다. 군 관계자는 "진안의 청정 자연환경과 용담호 맑은 물을 지키고 고가 장비의 기대 수명을 높일 수 있도록 폐오일 교환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